

교류와 협력으로 민족단결 고양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장춘시조선족중학교,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 길림성술문화박물관 참관



9월 6일,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장춘시조선족중학교당총지,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당지부의 관계자들은 20여명의 당사업일군들을 인솔하여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을 찾아 공동건설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활동에서 백산방대그룹 당위서기이며 리사장인 녕봉련이 방문단 일행에 백산방대그룹을 소개, 34년간 그룹은 시종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혁신발전을 견지하며 중법신의성실을 견지하고 브랜드 발전을 견지하며 문화로 기업을 흥성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종업원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사회에 보답하고 사회책임을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강진파는 “백산방대그룹은 시종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신임을 견지하고 시종 신의성실을 견지하며 시종 당건설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여 제반 사업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학습의 본보기를 확립해주었다. 우리는 백산방대그룹과 같은 기업과 공동건설을 촉진하고 녕봉련과 같은 기업가들과 동반자가 되어 붉은 당기가 영원히 더 높이 나뭇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춘시조선족중학교당총지 서기 왕백성은 “백산방대그룹은 여러개의 국가급 영예를 받아안았고 학교와 군대, 사회를 위해 많은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백산방대그룹의 당건설사업은 실속있고 세밀하다. 우리는 시야를 넓혔고 경험을 학습하게 되었으며 주변의 본보기 힘을 섭취하고 진정한 우정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 당지부서기이며 교장인 김영철은 “백산방대그룹은 당건설사업을 인도로 하는 예심기업이다. 기업의 당건설사업은 계획배치, 자료축적, 선전제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서 “특히 조선족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녕봉련 리사장의 사랑과 존중은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다. 우리는 상호 학습, 상호 조력을 통해 여러 민족의 공동한 단결분투와 공동한 번영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좌담회에서 백산방대그룹 당위서

기이며 리사장인 녕봉련과 길림성술문화박물관당지부 부서기인 호외가 각각 길림성조선족기업가협회, 장춘시조선족중학교당총지,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당지부와 <공동건설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방대그룹에서 건설한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은 민족단결진보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선으로 당의 민족정책과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총체적 요구를 관철, 락착하여 여러 민족의 단결과 대발전을 촉진하는 리념이 제반 사업에 융합 및 실시되도록 힘쓰고 여러 민족 군중들의 교양, 교류, 융합을 적극 촉진하여 민족단결진보의 꽃이 항상 활짝 피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정한관기자

국방교육 전개하여 전민 자질 제고

9월은 우리나라의 '전민국방교육의 달'이다. 9일 오전,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성교육청, 길림성문화관광청, 길림성퇴역군인사무청, 길림성국방동원판공실, 길림성군구 정치사업국, 사평시당위, 사평시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 성 '전민국방교육의 달' 주재활동이 사평전역기념관 앞 영웅광장에서 거행되면서 전 성 '전민국방교육의 달' 계열 활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렸다.

활동 현장에서 성 직속 및 사평시 직속 기관의 당원간부, 재학 사생, 퇴역군인 및 각계 군중 대표 총 200여명이 함께 전민국방교육 선전영상을 관람했다. 국가급 국방교육기인 사평전역기념관의 해설사 왕기기는 전민국방교육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기지의 전람, 전시 내용을 부단히 보완하며 전시, 진렬, 선전, 교육 수단을 탐색, 혁신하고 기념관매체자원을 통하여 전민국방교육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본지에 락착하여 국방교육 선전을 일상 사업에 관철시킬 것을 전 성 각급 각종 국방교육기지에 제안했다.

3등급을 내면 세운 사평시퇴역군인자원봉사자협회 부회장이며 퇴역로전사인 상보산은 발언에서 “퇴역군인집단은 계속 국방건설사업에 힘을 공헌하고 평안사평 건설에 조력하며 사평시 경제 발전에 힘을 다하겠다!”고 표했다. 길림사범대학 문학원 학생 주페기는 청년대학생을 대표하여 한 발언에서 “길림의 전면 진흥을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자신

연길공항 '항사락' 봉사 브랜드 출시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통항 39년을 맞아 최근 항공사를 위한 공항 봉사 브랜드인 '항사락'(航司乐)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항사락' 봉사 브랜드는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 각 항공사의 각종 난점, 문제를 조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항공사를 위해 전방위, 전 과정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고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의 전반적인 봉사질을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다.

'항사락' 봉사 브랜드는 소통조를, 정보교환, 승무원 봉사, 항공사 선전, 연장봉사 등 5대류 봉사 부문을 건립했는데 총 30여개의 봉사 내용을 포함한다. 이미 전문 항로 접수, 전문 인원 처리, 사안 추적, 전문 담당 등 형식을 통해 항공사의 각종 문제 57건을 해결하여 항공사들이 연길공항에서 문제에 봉착하면 '부담, 사람,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 부총경리 왕우는 “연길공항은 운명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항 주체 단위들과 협력하여 '항사락' 봉사 브랜드를 잘 구축하고 동시에 부단히 봉사질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며 봉사 표준을 보완하고 봉사 제품을 제고하며 민족특색이 있는 공항으로 건설함으로써 항공편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은 마음이 편하고 오직 항공편이 없는 항공사들은 아오 싶게 하여 연변의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교통강국 건설에서 민용항공의 새로운 장을 쓰는 데 힘을 이바지하겠다.”고 표했다.

중국 남방항공, 한국 더웨이항공 등 항공사 대표들이 교류발언에서 '항사락' 봉사 브랜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소중한 건의를 제기했다.

/ 정한관기자

2024년 길림성 인터넷안전 선전주간 가동

9월,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길림성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 길림성교육청, 길림성통신관리국, 길림성공안청, 중국인민은행 길림성분행, 길림성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길림성총공회,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성부녀연합회 등 부문에서 연합하여 주최한 2024년 길림성 인터넷안전 선전주간활동 배치회 및 가동식이 장춘에서 영상 연결 방식으로 전 성 각지와 동시에 거행되었다.

가동식에서 각지, 각 부문에서 선발

한 인터넷안전에 관한 21개의 선전작품을 소개, 전시, 방송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관광, 위생건강, 인터넷 사회조직 등 분야에서 온 11명의 인터넷안전 실천자 대표들이 인터넷안전 창의를 발기하여 전사회가 인터넷안전 선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창함으로써 인터넷안전 선전활동의 보급과 영향력을 전적으로 확대했다.

료해에 따르면 2024년 인터넷안전 선전주간활동은 '인터넷안전은 인민을 위한 것이고 인터넷안전은 인민에

의거해야 한다'를 주제로 했다. 선전주간 기간에 길림성교육청과 길림성통신관리국, 길림성공안청, 중국인민은행 길림성분행, 길림성총공회,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성부녀연합회 등 부문은 교사절, 전신의 날, 법치의 날, 금융의 날, 청소년의 날, 개인정보보호의 날 등 6개 주제활동을 전개하며 각지, 각 부문에서도 정부, 기업, 사회조직, 광범한 네티즌 등 사회각계의 력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터넷안전 클라우드 전시회, 인터넷

안전어 '안전을 말한다', 인터넷안전 '정각보고', 인터넷안전 '작품쇼', 네트워크안전 기증 진입 등 활동을 통해 사회의 여러 장면에 깊이 침입하고 인터넷안전 지식을 광범하게 선전하며 인터넷안전 예방 기능을 보급하고 온·오프라인이 함께 추진하는 선전구도를 전적으로 구축하여 전사회가 인터넷안전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는 짙은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 길림일보

▶ 1면에서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으로 정신을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끈기 있게 견지하고 새시대 덕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새시대 학교 사상정치교양을 부단히 강화하고 개선하며 청소년들을 교양, 인도하여 맑스주의 신념,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신심을 굳히고 보국강국의 지향을 품고 용감히 담당하는 분투자로 되게 해야 한다. 새시대 위대한 변혁의 성공적 사례를 운용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희생자원을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실천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로 인재를 육성하는 공간과 진지를 부단히 확장해야 한다.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강도를 높이고 중화민족공동체주의의 확고한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전략, 인재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전략, 혁신으로 발전을 구동하는 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일체화로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

전,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견인력으로 삼고 혁신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하여 고등교육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학교 학과 설치 조절 기제와 인재양성 모식을 완벽화하며 기초학과, 신흥학과, 교차학과 건설과 출중한 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 기업, 과학연구기구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빨리 현실적 생산력으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이 융통하고 산업과 교육이 융합하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장인, 수련공, 고기능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을 중심으로 교육공공봉사의 일반특혜성, 접근성, 편의성을 부단히 제고하여 교육 개혁,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의무교육 량질, 균형 발전을 추동하여 도시와 농촌, 구역간, 학교간, 군체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 '두가지 부담 경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수업시간의 교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며 방과후 봉사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 교육디지털

화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량질 교육자원의 수익면을 넓히고 평생학습공공봉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이 정신으로 강한 교원대오를 건설하는 행동을 실시하고 교원 도덕기풍 건설을 강화하며 교원양성강소의 질을 높여 새시대 수준 높은 교원대오를 육성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지위, 사회적 지위, 직업적 지위를 높이고 교원에 대한 대우보장을 강화하며 교원의 직업적 존엄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교원들이 숭고한 사회적 명망을 향유하게 하고 교원직업이 사회에서 가장 존중을 받는 직업의 하나로 되게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육의 대외개방을 깊이있게 추동하고 '인입'과 '진출'을 총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영향력, 경쟁력, 발언권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국제학술교류와 교육과학기술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치리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교육사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국의 힘을 더욱 많이 기여해야 한다.

리강은 회의의 사회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 대국

의 전략적 높이에서 새시대 교육사업에서 거둔 력사적 성과, 발생한 구도적 변화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교육강국의 과학적 내포와 기본 경로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해석했으며 교육강국 건설에서 정확히 처리해야 할 중대한 관계를 깊이있게 문술하고 교육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임무와 중대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포지했다.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시야가 넓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강한 정치적, 사상성, 지도성이 있는바 새시대, 새 로정에서 교육사업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헌으로 교육강국을 건설하는 데 전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진지하게 학습, 터득하고 깊이 관철, 실시해야 한다. 사상과 행동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 포지에 통일시켜 실제적으로 일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실제적인 효과를 추구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의 참신한 장을 힘써 엮어야 한다.

정철상은 총화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교육의 정치적 속성, 인민적 속성, 전략적 속성을 단단히 파악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의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신을 단련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고 덕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실행하는 관건적인 과목을 잘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화 발전을 추동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완벽화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의 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지지하고 인술하는 중요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 자질이 높은 전문화한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이 정신을 교양하며 지식을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대우보장을 강화하여 교육강국 건설의 중요한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교육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교육의 질 높은 발전에 리로운 체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뜻을 바는 정신으로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잡고 사업배치가 실제로 행해져 효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에서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료녕성, 상해시, 호북성, 귀주성,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유한회사, 북경대학의 책임자가 교류발언을 했다.

회의에 앞서 습근평 등 지도자 동지들이 40번째 교원절 경축 및 전국 교육 분야 선진집단과 선진개인 표창 활동에 참가하는 대표들을 친절히 접견하고 대표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텔레비전 전화회의 방식으로 소집되었다. 중앙교육사업지도소 조 소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당 당정 주요 책임자와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중앙,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군대의 관련 단위 주요 책임자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처직 기구, 대학교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